

## 국내 통역 연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 — 연구 패러다임 변화 중심으로 —

원 중 화  
(중앙대)

### 1. 서론

문헌상의 기록에 따르면 국내에서 역관의 이름으로 통역사들이 활동한 것은 고려 시대로 거슬러 올라간다(김남희 2012a). 여러 관련 사료에 따르면 고려 시대부터 조선 시대에 이르기까지 사역원 등의 제도를 통해 통번역을 담당하는 관리로서 역관을 양성하였으며, 이들 역관들은 통번역 업무를 비롯하여, 관련 행정 업무,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외교 사절 업무 등 국가 간 소통과 교류의 현장에서 다양한 역할을 수행했다(강지혜 2004: 81-97; 김남희 2012b, 2014; 유정화 2014). 그러나 동시통역, 순차통역을 포함한 현대적 의미의 국제회의 통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79년 한국외대 통역대학원의 설립과 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당시 국내 최초의 전문통번역 교육기관으로서 한국 외대에 설립된 동시통역대학원(1997년에 통번역대학원으로 개칭)은 해외 교류가 물꼬

를 트기 시작하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그리고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에서 다양한 통번역 현장의 주역 역할을 담당하면서 빠르게 성장했다. 특히 1991년 1월 17일에 발발한 걸프전 중 CNN 생방송의 TV동시통역은 동시통역이라는 전문 직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폭되는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김대진 2002: 12; 최정화 2001: 16).

동시통역사라는 전문 직종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폭은 세계어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는 영어를 포함한 외국어 학습의 열풍, 해외 교류의 증가, 어린 학생들의 해외 체류 증가 등과 맞물리면서 많은 수의 통번역대학원 혹은 통번역학과의 개설로 이어졌다(통번역대학원 개설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김진아 외, 2014 참고할 것). 이에 따라 통역을 강의하는 전임 교원의 수가 늘어나면서 학문 분야로서의 통역학에 대한 관심과 수요도 함께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통역학이 독립된 학문 분야로서 정착될 수 있었던 것은 한국외대를 위시한 몇몇 통번역대학원에서의 통번역학 박사과정 개설<sup>1)</sup>과 통번역 관련 학회의 설립,<sup>2)</sup> 그리고 통번역 학술지 발행의 역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초창기 통역대학원 혹은 관련 학부과정에서 통역 실무를 교육하면서 동시에 통역학 연구를 주도하던 전임 교원들은 파리3대학 통번역대학원(ESIT) 등 해외통역대학원에서 학위 과정을 마치고 귀국하여 통역 강의와 실무를 겸하던 그룹, 전문 통역사로 활동하면서 국내외에서 언어학 등 유관 학문 분야의 박사 학위를 취득한 그룹, 그리고 많은 수는 아니지만 유관 학문 분야를 전공한 비통역사 그룹 등 크게 세 그룹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이들 세 그룹은 초기 국내 통역학 연구의 기틀을 잡아나가는 데 있어 각각의 특성이 반영된 방식으로 주도적 역할을 담당했다.

- 1) 통역학 관련 박사과정으로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이 1999년에 그리고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이 2005년에 각각 박사과정을 개설했다.
- 2) 통역학 관련 주요학회로 통역번역학회가 1998년, 번역학회가 1999년에 그리고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의 통번역연구소가 1997년에 각각 창립되었으며, 주요 학술지로는 번역학회의 『번역학연구』가 2000년, 통역번역학회의 『통역과 번역』이 1999년, 그리고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의 『통번역학연구』가 1997년에 초판을 발행했다. 그밖에 교육 부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한국통번역교육학회의 『통번역교육연구』가 2003년에, 그리고 이화여대 통번역대학원의 학술지 『T&I Review』가 2011년에 각각 초판을 발행했다.

그러나 통역학이 다양한 주제를 포괄하며 양적으로 질적으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한 개념적 틀은 상대적으로 불분명한 편이었다. 무엇보다도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함께 성장하고 발전하던 번역학이 보다 포괄적인 장르와 텍스트 유형,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연구 성과물들을 포섭하면서 빠르게 확대되어 가는 반면에, 통역 연구는 번역학과의 관계는 차치하고, 그 자체로서의 본질적인 개념이나 범주 등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못했다. 그 결과로 국내 번역학 연구의 도해를 마련해보고자 하는 여러 시도에서, 통역 연구는 아예 분류 항목에서 배제되거나,<sup>3)</sup> 또는 번역학의 한 하위 분류 항목으로 간주되어 그 다양하고 복잡한 양태가 모두 반영되지 못하면서 분류에 있어 항목 간의 불균형과 혼란을 유발하는 결과를 낳기도 했다<sup>4)</sup>.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극복하고, 통역학과 번역학의 대치관계 혹은 상보관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통역 연구자들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먼저 통역학 자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그 하위 항목들을 포괄할 수 있는 명확한 분류 틀을 마련하는 것이다(Munday 2001: 13). 이러한 분류 틀을 통해 통역 연구의 범주를 규명하고, 지금까지의 통역 연구의 궤적과 향후의 향방을

3) 지금까지 국내 번역학의 궤적에 관한 여러 연구물이 발표되었다. 김지원(2000, 2004), 김정우(2005, 2008), 김혜림(2013), 유명우(2000), 이영훈(2013), 이항(2011a), 정호정(2013), 최희섭(2007)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4) 이항(2011a)은 윌리엄스와 체스터만의 번역학 분류에서 제시된 12개 영역(텍스트 분석과 번역, 번역품질평가, 장르별 번역, 멀티미디어 번역, 번역과 테크놀로지, 번역의 역사, 번역 윤리, 슬어 및 용어론, 통역, 번역 과정, 번역 교육, 번역 직업론 등)을 사용하여 『통번역학연구』지에 실린 논문 총 193편을 분류했는데, 저자 자신도 언급했듯이 통역이라는 분류항목이 타 세부항목에 비해 지나치게 다양한 주제를 다루어야 한다는 본질적 이유로 인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점이 노정되었다. 김혜림(2013)은 번역학 연구를 통역과 번역 두 개 범주로 다시 분류하고 각각을 11개의 하위 범주(텍스트 분석과 통역, 통역품질평가, 통역과 테크놀로지, 언어학적 관점에서의 통역, 통역의 역사, 통역 윤리, 슬어 및 용어론, 통역 과정, 통역 직업론, 기타)로 구분하여, 국내 주요 통역 관련 학술지 중 『통역과 번역』, 『번역학 연구』의 창간호부터 2013년 상반기까지 게재된 총 683편의 논문을 분류했다. 김혜림의 연구는 통역과 번역을 따로 분리했다는 의미를 둘 수 있으나, 메시지 전달 방식이 완전히 다른 통역과 번역이 동일한 하위 항목으로 분류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가 남아있으며, 특히 기타 항목이 전체 논문 중 두 번째로 많은 15.27%를 차지한다는 점에서 분류 항목의 적절성에 대해 의구심을 갖게 한다.

용이하게 가늠해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통역 연구의 명확한 분류 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시도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토마스 쿤(Thomas Kuhn 1996)의 패러다임 개념을 통역학에 적용한 뢰헤커(Pöchhacker 2004: 67-83)의 다섯 가지 패러다임을 차용했다. 동 시대를 살아가는 연구자들이 같은 사고의 틀을 가지고 같은 가치관과 관습으로 연구 과제에 접근하며, 하나의 패러다임이 끝나고 난 후에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 오래된 패러다임을 대체하게 된다는 쿤의 패러다임 개념이 국내 통역학의 정체성을 규명하고, 흐름의 궤적을 설명하는데 적합한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라 보았기 때문이다. 데이터 수집을 위해 국내에서 발행되는 대표적 통번역학 학술지 3종을 선정하여 이로부터 통역 논문을 모두 추출한 후에, 각 논문의 연구 목적이거나 연구 셋팅 등을 정독하고 이로부터 해당 논문의 패러다임을 결정하였으며, 데이터의 질적, 양적 분석을 통해 초창기부터 최근까지 국내 통역 연구의 흐름과 현주소를 파악하고, 이로부터 향후 패러다임의 향방을 가늠해보았다.

## 2. 뢰헤커의 통역 연구 패러다임

20세기 중반 과학철학자 토마스 쿤(1996: 10-11)은 과학사의 변화를 패러다임 전이(paradigm shift)로 규정했다. 쿤에 따르면, “한 패러다임에 속한 과학자들은 동일한 원칙과 기준, 방법, 이론 등을 가지고 과학적 연구를 진행하며, 한 시대를 주도하는 패러다임은 ‘정상과학(normal science)’으로 군림하다가, 시간이 지나 그 패러다임이 퇴조한 후에는 다른 패러다임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난다.” 쿤의 패러다임 개념을 차용한 뢰헤커(2004)는 그때까지 통역학 연구를 주도해온 주요 흐름을 해석이론 패러다임(interpretive theory paradigm: IT), 인지정보처리 패러다임(cognitive processing paradigm: CP), 신경언어학적 패러다임(neurolinguistic paradigm: NL), 목표텍스트지향 패러다임(target-text-oriented paradigm: TT), 양방향담화 패러다임(dialogic discourse-based interaction paradigm: DI) 등 다섯 가지 패러다임으로 설명했다. 뢰헤커에 따르면 이 다섯 가지 패러다임은 시기적 중복은 있으나 개략적으로

IT → CP → TT → NL → DI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① IT(해석이론 패러다임): 파리학과(ESIT)의 해석이론에 기반한 패러다임. 통역 과정을 언어 대 언어가 아닌 sense 대 sense의 전환으로 규정. 실제 상황에서의 통역 자료를 녹음, 전사하여 전문통역사의 지식과 경험에 근거해 이를 분석하고 처방적 결과를 도출해내는 것을 중시함. 실험 연구의 인위적 상황에 대해 부정적이며, 실증적 연구보다는 경험과 직관에 의한 결론 도출을 중시함. 1970년대 후반을 주도한 패러다임이며 대표학자로 셀레스코비치(Seleskovitch 1978)와 레더러(Lederer 1981)가 있음(뢰헤커 2004: 68~69).

② CP(인지정보처리 패러다임): 1980년대 들어서면서 질, 매킨토시, 모저-머저, 스텐즐 등은 주관적 판단이 배제된 보다 실증적인 연구의 필요성을 강조함. 통역사의 머릿 속 인지적 정보처리에 초점을 맞추고 인지과학 등 인접학문의 이론에 의거하여 결론을 도출해냄. 방법론으로서 실험 방법 선호함(뢰헤커 2004: 71~74).

③ NL(신경언어학적 패러다임): 가장 경험주의적이고 객관적인 연구방법으로서, 신경심리학적 기법과 이론을 적용, 통역사 머릿속 언어정보처리 기제를 확인하고자 함(예: dichotic listening 연구). 엄정한 실험 조건 하에서 EEG, PET, fMRI 등의 영상기기를 활용하여 뇌 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살핌. 대표학자로 파브로와 그랜(1997)이 있음 (뢰헤커 2004: 74~76).

④ TT(목표텍스트 지향 패러다임): 1980년대 말이 되면서 기능주의의 영향을 받아 TT지향적으로 번역 규범을 중시하는 DTS가 등장하면서 텍스트의 구조적 요소들과 화용론적 요소들을 중심으로 통역 텍스트를 분석하는 연구 패러다임이 등장함. 텍스트 언어학과 담화 분석 이론을 적용함. 텍스트에 포함된 문화적 요소들이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영향 역시 관심 대상임. IT와 CP가 국제회의 통역을 주 연구대상으로 했다면 TT는 커뮤니티 통역에 좀 더 비중을 둬. 대표학자로 뢰헤커(1994)가 있음 (뢰헤커 2004: 76~78).

⑤ DI(양방향 담화 패러다임): 주로 커뮤니티 통역에서 참여자간의 담화 속에 나타나는 상호작용을 사회언어학적 담화분석의 틀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특히 특정 맥락 속에서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수행 시 나타나는 상호작용의 역학을 강조함. 지역사회 통역에서의 turn-taking 분석 등이 좋은 예임. 대표학자로 로이(2000)와 와덴즈(1998)가 있음 (피헤커 2004: 78~79).

본 연구를 위해 진행된 국내 통역 논문 분석에서는 피헤커가 주창한 위의 다섯 가지 패러다임 이외에 세 가지 패러다임이 더 추가되었다. 추가된 패러다임에 관해서는 3.2장에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 3. 국내 통역 연구의 패러다임 분류

#### 3.1 분석 대상 논문 선정

국내에서 발행되는 통역번역관련 학술지는 1997년 창간호를 발행한 한국외국어대 통번역대학원의 『통번역학 연구』, 1999년 창간된 한국통역번역학회의 『통역과 번역』, 그리고 2000년에 창간된 번역학회의 『번역학 연구』, 그리고 각각 2007년과 2011년에 창간된 한국통역번역교육학회의 『통번역교육 연구』와 이화여대 통번역연구소의 『T&I Review』가 있다. 본 연구는 국내 통역학 초기부터 지금까지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피는 것이 목적이므로, 이 중 역사가 가장 오래되고 ‘교육’과 같은 특정 주제가 아닌 전반적인 통역학/번역학 논문이 실리는 『통번역학연구』(이하 ‘ITRI’로 칭함), 『통역과 번역』(이하 ‘KSCI’로 칭함), 『번역학 연구』(이하 ‘KATS’로 칭함) 창간호부터 2014년 말 마지막 호까지 실린 총 1,125편(KSCI, 298편; ITRI, 378편; KATS, 449편)의 논문 중 통역 관련 논문 264편을 선별하고, 이중에 해외 연구자에 의해 게재된 논문을 제외한 총 226편을 분석 대상으로 했다.<sup>5)</sup>

5) 물론 이 세 종의 학술지 이외에 여타의 어문학 관련 학술지에도 통역 논문이 게재될 가능성이 없지 않지만, 통역이라는 것이 비교적 한정된 공동체 내에서, 그리고 한정된 연구자들 사이에 수행되는 분야이다 보니, 통번역학분야에서 가장 역사가 오래된

논문은 기본적으로 제목에 ‘통역’ 혹은 ‘통번역’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을 모두 수집했다. 그러나 제목에 통번역이라는 용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라고 해도 실제 내용이 온전히 번역에 관한 내용이거나, 통역을 다루기보다는 순수 언어학 이론에 치우친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반면에 노트테이킹이나 문장 구역 등 통역과 관련된 주제를 다룬 논문들은 모두 분석 대상에 포함시켰다.

### 3.2 개별 논문의 패러다임 분류

통역 논문의 패러다임을 결정할 때는 논문의 연구 목적이 무엇인지를 가장 중점적으로 살폈다. 즉,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기 위해 어떤 대상을 상대로 어떤 방법을 선택했는지를 감안하여 살폈다. 이를 위해 논문의 제목과 초록만으로는 정확한 파악이 어려웠으며, 저자의 연구 패러다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논문 전체의 내용을 살펴야 했다. 또한 논문 분류과정에서 피혜커의 다섯 가지 패러다임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교육 패러다임(educational paradigm: ED), 전문직업-제도화 패러다임(socio-professional paradigm: SP), 철학적-관념적 패러다임(philosophical-speculative paradigm: PP) 등 세 패러다임을 추가했다. 이 중 EP 패러다임은 대학원 혹은 학부 과정에서의 통역 교육 과정, 교육 방법, 교육 목표, 커리큘럼 구성, 학생 평가 등을 다루는 논문 등 통역교육 관련 주제들을 포함시켰고, SP 패러다임은 사회 속에서 통역사라는 전문 직업의 역할과 위상을 핵심 주제로 하며, 다양한 분야의 통역(예를 들어 사법통역, 의료통역, 방송통역, 외교통역 등)의 제도화, 직업으로서의 통역사, 통역이나 통역사 교육 제도의 역사적 고찰 등이 포함되었다. PP 패러다임은 2007년경부터 등장했지만 아직 연구자나 논문의 수가 극히 제한되어 있는 패러다임이며, 보다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통역에 접근하는 그룹이다. 마지막으로 피혜커의 다섯 가지 패러다임 중 TT 패러다임, 즉 목표 텍스트에 포함된 미시적 성분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은 주로 텍스트의 언어학적 성분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 2007년 경 텍스트의 문화적 요소 전환을 논하는 논문들이 몇 편 발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데이터 분석에서는 TT 패

---

이 세 학술지의 흐름을 살피는 것만으로도 국내 통역 연구의 전반적인 패러다임의 흐름을 살피는데 큰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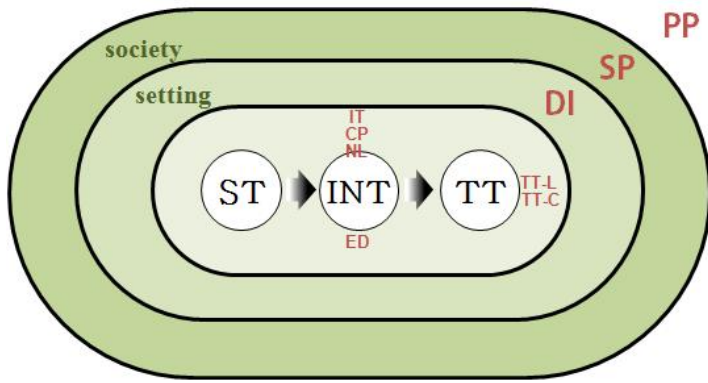
러다임을 언어학적 성분의 비교 분석이 주요 내용인 TT-L과 문화적 요소의 비교 분석에 초점을 맞추는 TT-C로 다시 하위 분류했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전체 통역 논문의 패러다임을 다음 여덟 개 항목으로 분류했다.

표 1 국내 통역 논문의 여덟개 패러다임

패러다임		
IT		해석이론 패러다임. 전문통역사의 지식과 경험을 근간으로, 직관에 의거하여, 주로 처방적인 결론을 도출해 냄
CP		인지정보처리 패러다임. 인지과학이나 심리언어학의 제반 이론에 기대어 통역사 머리 속의 정보 처리를 분석함. 주된 연구 방법은 실험
NL		신경언어학적 패러다임. EEG, PET, fMRI 등 영상 기법을 활용하여 통역사 뇌의 활성화 양상을 관찰하고 분석함. 대표적인 경험주의적 연구임
TT	TT-L	텍스트 언어학이나 담화 분석 등의 이론에 의거하여 텍스트 지향적인 분석을 함. 언어적 분석은 TT-L, 문화 요소 분석은 TT-C로 하위 분류함
	TT-C	
DI		양방향담화 패러다임. 주로 커뮤니티 통역에서 참여자 간의 담화 속에 나타나는 상호 작용을 담화 분석 차원으로 접근하는 패러다임
ED		교육 패러다임. 대학원/학부과정에서의 통역교육 목표, 방법, 과정, 평가 등 교육 관련 주제들을 포괄함
SP		전문직업-제도화 패러다임. 통역사라는 직업의 제도화, 통시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사회 속에서의 통역사라는 직업을 관찰, 분석하는 패러다임
PP		철학적-관념적 패러다임. 철학, 미학, 기호학 등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인문 학문의 이론들을 통역에 접목하고자 하는 시도임.

패러다임을 다시 도식으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통역사(INT)에 초점을 맞추는 패러다임으로 IT, CP, NL, ED, 목표텍스트의 분석/비교에 초점을 맞추는 TT-L과 TT-C, 그리고 회의 셋팅 자체와 그 참여자 간의 상호 작용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DI, 사회 역사적 맥락 속에서 거시적으로 통역을 바라보는 SP, 그리고 관념적, 형이상학적 시각으로 통역에 접근하는 PP 등으로 분류해 고찰했다.

그림 1 여덟 가지 패러다임의 도해



#### 4. 결과

국내 통역 연구의 패러다임은 다음과 같이 양적 분석을 먼저 한 후에 각 패러다임에 대한 질적 분석으로 이행했다.

##### 4.1 패러다임 변화에 관한 양적 분석

우선 세 학술지의 전체 논문 수 대비 통역 논문 수는 다음과 같다.

표 2 주요학술지의 논문 수 대비 통역 논문 수 비율

	전체 논문 수	국내인 통역 논문 수	외국인 통역 논문 수	통역 논문 수	통역 논문의 비율
1997	10	7	0	7	70%
1998	8	3	0	3	38%
1999	19	6	1	7	36.84%
2000	34	3	3	6	17.65%
2001	44	16	1	17	38.64%
2002	48	14	4	18	37.50%
2003	53	14	2	16	30.19%
2004	49	10	1	11	22.45%
2005	37	6	3	9	24.32%

2006	49	9	1	10	20.41%
2007	68	15	0	15	22.06%
2008	77	11	1	12	15.58%
2009	85	13	3	16	18.82%
2010	92	13	5	18	19.57%
2011	100	18	7	25	25.00%
2012	124	21	5	26	20.96%
2013	115	24	0	24	20.87%
2014	113	23	1	24	21.24%
합계	1125	226	38	264	평균 28%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 학술지의 전체 논문 1,125편 중 국내외 연구자에 의해 산출된 통역 연구물의 수는 첫째 70%를 기록하고 난 후 다음해부터 대폭 감소하여, 중간에 다소의 등락이 있기는 하지만 평균 28%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고른 비중을 보였다. 즉 전체 논문이 10개라면 그 중 약3개 정도는 통역 논문이었다는 것이다. 다음 표는 학술지 별 논문 수 합계이다.

표 3 학술지 별 통역논문 비율

학술지	KSCI	ITRI	KATS
전체 논문 수	298	378	449
통역 논문 수	113	105	46
비율	37.92%	27.78%	10.24%

위의 표를 보면 “통역번역대학원 출신의 교수들이 결속하여 실재를 넘어선 이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통역번역학회 창립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게 되어 한국 최초의 전문 통역 및 번역 관련 학회를 설립하게 되었다”라는 설립 취지를 밝힌(통번역학회 웹사이트 인용) 통번역학회가 가장 통역 논문 비율이 높았고, “한국 최초이자 국내외 가장 넓은 인적 네트워크를 가진 연구기관으로서 통·번역계의 학술적 발전을 위해”(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 웹사이트 인용) 설립된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가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비해 “번역과 번역학의 정립을 통하여 한국의 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번역학회 웹사이트 인용) 창설된 번역학회는 전체 논문 중 통역 논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가장 적었다.

다음은 본 논문이 주로 살피고자 하는 패러다임의 연도별 흐름을 나타내는 수치이다.

표 4 각 패러다임의 연도별 논문 수

yr	IT	CP	NL	TT	DI	ED	SP	PP
1997	1			4		1	1	
1998	1	1				1		
1999	2	1		1		1	1	
2000	2	1						
2001	3	2		5		5	1	
2002	3	1		4		5	1	
2003	3	1		2		5	3	
2004				2	1	3	4	
2005	1	2				1	2	
2006	2	1				4	2	
2007		4		3		4	3	1
2008		4				5	1	1
2009	1	2				2	8	
2010		2	1	1		3	5	1
2011		6		1	1	6	4	
2012		7	1		2	7	4	
2013	1	6	1	2		8	5	1
2014	1	6	1	2		7	6	
합계	21	47	4	27	4	68	51	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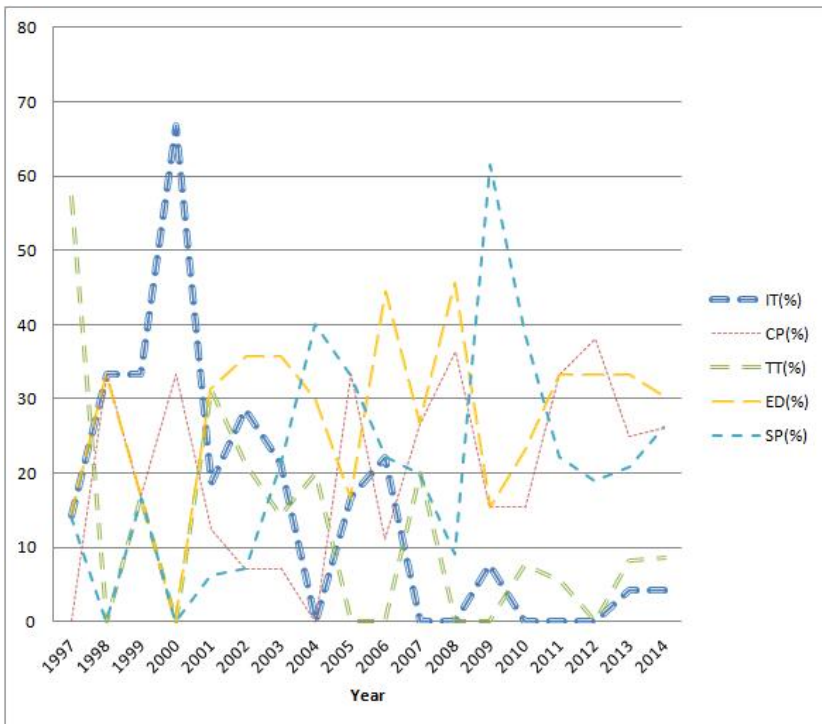
다음은 패러다임의 증감 추세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연도별로 해당 년도의 전체 논문 수 대비 각 패러다임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표 5 연도별 전체 논문수 대비 각 패러다임의 비율

year	IT(%)	CP(%)	NL(%)	TT(%)	DI(%)	ED(%)	SP(%)	PP(%)
1997	14.3	0	0	57.1	0	14.3	14.3	0
1998	33.3	33.3	0	0	0	33.3	0	0
1999	33.3	16.7	0	16.7	0	16.7	16.7	0
2000	66.7	33.3	0	0	0	0	0	0
2001	18.7	12.5	0	31.3	0	31.3	6.3	0
2002	21.4	7.1	0	28.6	0	35.7	7.1	0

2003	21.4	7.1	0	14.3	0	35.7	21.4	0
2004	0	0	0	20.0	10.0	30.0	40.0	0
2005	16.7	33.3	0	0	0	16.7	33.3	0
2006	22.2	11.1	0	0	0	44.4	22.2	0
2007	0	26.7	0	20	0	26.7	20.0	6.7
2008	0	36.4	0	0	0	45.5	9.1	9.1
2009	7.7	15.4	0	0	0	15.4	61.5	0
2010	0	15.4	7.7	7.7	0	23.1	38.5	7.7
2011	0	33.3	0	5.6	5.6	33.3	22.2	0
2012	0	33.3	4.8	0	9.5	33.3	19.0	0
2013	4.2	25	4.2	8.3	0	33.3	20.8	4.2
2014	4.3	26.1	4.3	8.7	0	30.4	26.1	0
평균	14.7	20.3	1.2	12.1	1.4	27.7	21.0	1.5

그림 2 연도별 주요패러다임의 변화



우선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8년간의 전체 평균치를 보면(표 5 참조) ED가 27.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SP와 CP, 그리고 IT와 TT가 그 뒤를 이었다. 그러나 년도 별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흥미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난다. 표 5와 그림 2를 살펴보면 국내 통역학 패러다임은 개략적으로 2004~2005년을 기점으로 현격한 전환기를 겪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전을 1기, 그 이후를 2기라고 볼 때 1기, 즉 1997년부터 2004~5년까지의 기간 동안에는 전반적으로 다섯 개의 패러다임이 혼조세를 보였으나, 특히 그 중에서도 다음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IT가 가장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이 ED와 TT, 그리고 CP와 SP가 뒤를 이었으며, NL과 PP는 전무했고, DI는 전무하다가 2004년 도에야 비로소 한편의 논문이 발표되었다.

표 6 1기의 패러다임 변화 추세

year	IT(%)	CP(%)	NL(%)	TT(%)	DI(%)	ED(%)	SP(%)	PP(%)
1997	14.3	0	0	57.1	0	14.3	14.3	0
1998	33.3	33.3	0	0	0	33.3	0	0
1999	33.3	16.7	0	16.7	0	16.7	16.7	0
2000	66.7	33.3	0	0	0	0	0	0
2001	18.7	12.5	0	31.3	0	31.3	6.3	0
2002	21.4	7.1	0	28.6	0	35.7	7.1	0
2003	21.4	7.1	0	14.3	0	35.7	21.4	0
2004	0	0	0	20.0	10.0	30.0	40.0	0
평균	26.1	13.8	0	21.0	10.0	24.6	13.2	0

그러나 이러한 추세는 2005년 이후부터 현격히 달라지기 시작했다.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NL, DI, PP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뒤섞여 있던 패러다임들이 2기에 들어서면서 확연히 두 부류로 나뉘기 시작했다. 즉, IT와 TT는 현저히 줄어들었고, 이에 반해 ED, CP, SP는 상향 추세를 보였다. 특히 그 중에서도 초반기부터 비교적 안정된 비율을 유지하던 EP와 CP에 비해 SP는 현격한 상승세를 보였다. 그리고 NL, DI, PP는 제한된 수의 논문이 발표되기는 했으나 아직 안정된 비율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려울 정도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1997년부터 2014년까지 18년간의 패러다임 변화 추세를 요약해보자면, 전

문통역사의 지식과 경험에 의거하여 직관과 관찰로 처방적 결론을 이끌어 내던 IT는 초창기 높은 비율을 유지하면서 국내 통역학의 정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으나, 특히 2007년 이래로 경험주의적 연구 방법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급격히 감소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ED는 초기부터 안정된 수의 논문이 발표되면서 2기 이후에까지 같은 추세를 이어나갔고, 1기에 등락을 거듭하던 CP는 실험 등 연구 방법이 다양해지면서 전환점 이후 점차 그 비율이 증가했다. 이에 반해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논문이 발표되던 TT는 2기로 들어서면서 빠른 속도로 감소했다. TT의 논문들은 주로 언어학적 요소들에 중점을 둔 TT-L에 치중되었으며, 이에 반해 TT-C는 2002년도에 1편(방교영 2002), 2003년도에 1편(황지연 2003), 그리고 2007년도에 한꺼번에 3편(김혜림 외, Lim, 장애리)이 발표된 이외에 문화적 요소를 다룬 통역 논문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와 관련하여 장애리(2007)는 ‘한류드라마와 중국사회 전통사상 부흥 간 관계, 그리고 그 관계가 통번역에 미치는 영향’을 논하면서 “이제 통번역 담론에서 언어학적 측면이외에 사회 문화적 측면이 한 축을 담당할 때가 되었다”고 주장해 이후의 통역 텍스트 연구에서 문화적 요소들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질 것을 예측했다. 그러나 이러한 예측과는 달리 TT-C, 즉 문화적 요소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통역 담론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보다 통역 연구자들의 관심은 교육이나 인지 과정 등 통역사의 정보처리에 관심을 갖거나, 아니면 지역사회 통역이나 통역의 제도화 등 보다 거시적인 시각으로 전이되어 가는 것으로 보인다. 흥미로운 것은 SP(전문직업-제도화 패러다임)의 움직임이다. 초창기에 통역 혹은 통역 교육(사법통역사 양성 등)의 제도화와 관련한 논문들이 주로 발표되었던 SP는 특히 2004년 이후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후반부로 접어들면서 보다 거시적인 차원의 메타 담론으로서 ‘통역사의 역사적 개관’, ‘통역 교육의 역사적 고찰’ 등 통시적으로 통역의 궤적을 살피는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되었다.

그밖에 DI(양방향 담화 패러다임)의 경우는 사회적 인식, 데이터의 확보 등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아직 상당히 제한된 수의 논문이 산출되고 있으며, NL(신경언어학적 패러다임) 역시 신경학/신경언어학 분야의 전문가와 협동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아직 본격화하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의 NL 논문들은 주로 신경언어학적 이론들을 끌어와 연구자의 직관에 의해 통

역 과정을 소개하는 차원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앞으로 관련 분야의 전문가 집단과 협동 연구가 활발해지고, 또한 영상 기기의 발전으로 보다 정교한 결과 산출이 가능해질 때 NL 패러다임의 연구물이 보다 활발히 산출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된다. 마지막으로 PP(철학적-관념적) 패러다임은 극히 제한된 수의 연구자에 의해 시도되고 있는데, 앞으로 사회 철학 등 보다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영역의 담론들을 포섭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된다면 이 분야 역시 통역학의 또 다른 지평을 열어줄 수 있는 패러다임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은 통역 연구물을 꾸준히 발표하고 있는 개별 연구자들의 패러다임 변화를 확인해보겠다. 일정한 배경과 전문 분야의 지식을 가지고 통역에 대한 일정한 시각과 접근법을 유지하고 있는지, 개인적으로 패러다임의 변화가 있다면 그것은 어떤 양상을 띠고 있는지, 또 그것이 학계 전체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연관성을 가지고 움직이는지 확인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다음 표는 통역 관련 논문을 발표한 81명의 연구자 중 다섯 편 이상의 통역 논문을 발표한 12명 연구자들의 패러다임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표 7 주요연구자의 패러다임 변화

	논문수	연도 순 패러다임 변화
연구자1	18	TT-L▷ ED▷ IT▷ IT▷ ED▷ ED▷ IT▷ SP▷ SP▷ IT▷ IT▷ TT-C▷ ED▷ SP▷ CP▷ ED▷ IT▷ IT
연구자2	12	IT▷ SP▷ IT▷ IT▷ IT▷ SP▷ SP▷ SP▷ SP▷ ED▷ IT▷ SP
연구자3	12	CP▷ CP▷ CP▷ CP▷ CP▷ CP▷ CP▷ ED▷ CP▷ CP▷ CP▷ CP
연구자4	10	SP▷ SP▷ SP▷ SP▷ SP▷ ED▷ SP▷ SP▷ SP▷ ED
연구자5	10	SP▷ CP▷ SP▷ NL▷ CP▷ NL▷ CP▷ NL▷ ED▷ NL
연구자6	10	SP▷ TT-L▷ SP▷ DI▷ CP▷ SP▷ ED▷ ED▷ SP▷ SP
연구자7	8	ED▷ TTL▷ CP▷ CP▷ CP▷ CP▷ CP▷ CP
연구자8	5	TTL▷ TTL▷ ED▷ ED▷ ED
연구자9	5	IT▷ SP▷ CP▷ CP▷ CP
연구자10	5	TTC▷ ED▷ PP▷ PP▷ PP
연구자11	5	ED▷ CP▷ CP▷ CP▷ CP
연구자12	5	CP▷ CP▷ CP▷ CP▷ CP

위의 표를 보면 연구자1과 연구자6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1~3개 이내의 패러다임을 유지하고 있어, 통역 연구를 하는데 있어 일정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연구 질문을 선택하고 그 답을 찾아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교육자로서의 역할을 함께 담당하고 있는데 원인이 있겠지만, ED의 경우는 모든 연구자들이 대부분 관심을 갖는 패러다임이었다. ED를 제외하고 다른 패러다임을 살펴보면 연구자 2의 경우는 IT에서 SP로, 연구자3은 CP, 연구자4는 SP, 연구자5는 CP에서 NL로, 연구자7은 CP, 연구자8은 TT, 연구자 9는 CP, 연구자10은 TT에서 PP로, 연구자 11과 12는 CP 패러다임을 꾸준히 지향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4.2 각 패러다임 변화의 질적 분석

① IT(해석이론 패러다임): IT패러다임은 프랑스 ESIT학파가 주도하는 해석이론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이전의 텍스트를 중심으로 한 언어적 접근을 벗어나 통역사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제반 현상들, 혹은 통역 윤리, 통역 능력 개선과 평가 등 통역 업무에 관한 제반 사항들을 전문통역사의 풍부한 경험과 지식에 의거하여 판단하고 평가하며, 전문통역사들의 의견을 설문조사 등을 통해 취합하고, 처방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도출해내는 IT패러다임은(피헤커 2004: 68-9) 초기 전문통역사들을 중심으로 많은 반응을 이끌어 냈으며, 특히 해석이론가들이 주창하는 탈언어화 이론은 현재까지도 통역 기술 전수에 핵심적 요소로 활용되고 있다. 무엇보다 학문적 성과가 전무하던 초기 국내 통역학이 정립되던 시절, 실무와 학문의 중간 지점에서 전문직으로서의 회의 통역을 규정하고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는 점에 가치를 둘 수 있는 패러다임이다. 초기 통역학 연구에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던 IT 패러다임은 2005년경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겪으면서, 특히 경험주의적 접근을 중시하는 연구 경향이 우세해지면서 현격히 그 빈도가 줄어들었다.

② CP(인지정보처리 패러다임): CP는 보다 실증적이고 경험주의적인 연구 결과를 중시하는 통번역학의 전반적 추세에 힘입어 등장한 패러다임이다. 그러나 서구 통역학에서, IT의 전성기를 지나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해석 이론의

절대적 역할이나 위상에 대해 의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움직임이 경험주의적 방법론을 증시하는 CP패러다임으로 이어진데 반해(피헤키 2004), 국내에서의 CP 패러다임은 IT패러다임과 거의 같은 시기에 함께 전면에 등장했다. 다만 초창기에는 IT의 비중이 절대적 위상을 점하고 있었는데 반해 CP의 연구물은 그 비중이 미미한 편이었다. IT와 CP의 위상이 완전히 바뀌기 시작한 것은 2005년경의 패러다임 전환기부터였다. 이 시기를 지나면서 IT 패러다임의 연구물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CP는 꾸준히 그 위상을 유지해 2011년 경부터는 ED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CP패러다임을 가지고 통역에 접근하는 연구자들이 기본적으로 관심을 갖는 부분은 통역을 하는 과정에서 통역사의 머릿속 인지정보처리 기제는 어떻게 언어 정보를 처리하는가 하는 부분이다. 바로 눈으로 볼 수 없는 머릿속 블랙박스에서 진행되는 정보처리 과정을 유추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실제 회의 자료를 가져다가 컴퓨터로 음성 분석을 하여 휴지를 측정하는 등 시간적 양상을 판단하거나(이태형 1999, 2000, 2001, 2002), 정보 처리에 관한 심리언어학적 이론들에 의거하여 통역 과정에서의 정보 처리 과정을 유추하는 등의 방법으로 연구 주제에 접근했다(김대진 2005; Won 2007).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수업 중 학생들의 통역 자료를 심리언어학적 이론에 근거하여 분석 판단하거나[예: Nam(2008)의 노트테이킹 자료 분석], 통제된 조건 하에서의 통역 실험을 통해 정보 처리 과정을 유추, 관찰하는 연구물들이 산출되었다(예: 원종화 2010; Lee 2010). 통역사의 머릿속 언어정보처리 기제에 관한 관심은 사실 과정 지향적인 통역 연구에 있어서 번역과 차별화되는 핵심 부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관심은 앞으로도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금까지 이론에 의거한 유추, 실험, 컴퓨터 음성 인식 도구를 활용한 음성 분석 등에 머물러 있는 CP는, 향후 언어 정보 처리에 관한 보다 광범위하고 다양한 인지과학적 연구방법과 측정 도구가 개발되면서 보다 더 다양한 접근이 시도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③ NL(신경언어학적 패러다임): 통역사의 머릿속 언어정보 처리 양태를 PET, fMRI 등 영상기기를 활용해 밝혀보고자 하는 패러다임으로서 기기의 가용성, 비용, 실험 대상자의 확보, 분석 결과의 정교성 등 여러 어려움이 있어 아직 활발히 활성화되어있는 분야는 아니다. 통역학에서 신경언어학 분야의 논문

은 특히 패러다임 전환기가 지난 후 몇 년이 흐른 2010년부터 신경심리학적 이론들을 끌어와 통역사의 정보 처리 과정이나 통역사의 정보 처리 능력에 대한 가설을 세우거나, 실험 등을 통해 이러한 가설을 확인하는 논문이 제한적으로 발표되고 있다(예: 정혜연 2013). 그러나 앞으로 영상처리 기기의 사용이 보다 원활해지고 관련 분야와의 협동 연구가 원활해지며, 또한 영상 처리 기기의 언어정보 처리에 대한 설명력이 보다 더 정교해진다면 다른 어떤 분야보다 통역 과정을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실증적이고 객관적인 연구 방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다.

④ TT(목표텍스트 지향적 패러다임): 초창기 통역 연구 추세를 보면 IT패러다임보다 더 많은 논문이 산출된 부분이 TT패러다임, 즉 언어학적 이론들에 의거하여 통역 텍스트의 언어학적 요소들을 분석하는 연구물이었다. 통역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결문의 언어적 특성을 서술하거나(예: 김한식 1997), 통역 내용을 녹취하여 통역 오류 부분을 언어학적 측면에서 분석하기도 하고(예: 성종환, 1997). 관련된 언어학적 이론들을 가지고 통역 텍스트에서 보일 수 있는 현상들을 설명하는 등(이창수, 1997)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다. TT패러다임에서 특히 특기할 만한 사항은 텍스트의 언어학적 측면을 다룬 TT-L이 텍스트의 문화적 요소를 다룬 TT-C보다 훨씬 더 많다는 점이다. 즉 TT패러다임 전체 논문 27편 중 TT-L은 23편인데 반해, TT-C는 4편에 불과했다. 이 4편은 2003년도에 1편, 그리고 패러다임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직후인 2007년도에 3편이 한꺼번에 산출이 되었으나, 이후 그 이상의 힘을 얻지 못하고 사라져갔다. 2010년 이후에도 텍스트의 언어적 측면을 다룬 TT-L이 1년에 1편 정도는 산출되었으나 전반적으로 TT패러다임은 후반부에 접어들면서 비중이 상당히 낮아졌다. 그러나 향후 새롭고 혁신적인 언어학 이론이나, 문화적 요소의 분석 이론이 등장해 TT패러다임에 새로운 바람이 불게 될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할 일이다 (최근 ‘해석 문법’이라는 새로운 언어학적 분석 틀을 가지고 통역 현상을 정량적으로 분석한 박현일 외(2014) 논문이 한 예이다).

⑤ DI(양방향담화 패러다임): 주로 커뮤니티 통역에서의 대화 내용을 담화 분석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DI패러다임은 PP, NL과 더불어 가장 적은 수의 논

문이 산출되었다. 2004년도에 DI논문으로서는 처음으로 해외의 관련 선행 연구물에 의거하여 “대화통역사”의 역할과 기능을 서술한 논문이 발표된 이래로(고영민 2004), 7년 후인 2011년부터 법정 신문에 사용되는 질문 유형과 통역을 다룬 논문(이지은 2011), 의료통역 현장에서의 의료통역 대화를 분석한 논문(김나제스다 2012), 입양 아동을 위한 입양통역 내용을 분석한 논문(Nam 2012) 등 DI패러다임 논문 세편이 발표되는 것에 그쳤다. 2008년도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선포되는 등 다문화 커뮤니티의 유입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한국사회의 전반적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DI패러다임은 자료 확보의 어려움, 커뮤니티 통역에 관한 사회적 관심 결여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아직 본격적으로 충분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앞으로 세계인과의 소통이 더욱 일상화되고, 한국 사회의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이 더 빠른 속도로 진행된다고 가정한다면, 향후의 패러다임 전환이 DI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⑥ ED(교육 패러다임): 교육 패러다임은 국내 통역 연구 초기부터 최근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했다. 핵심 주제도 큰 변화 없이 비슷했는데, 예를 들어 ED패러다임의 1/3정도는 교육 방법에 대한 내용이었다. 예를 들어 통역대학원 학생들에게 한국어 수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정연일 1997), 교육 과정에서 노트테이킹의 활용 방법(이창수 2001), 문장구역 교육 방법(방교영 2003), paraphrasing을 통역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Hong 2010), 요약 통번역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김련희 2013) 등 교육 방법에 관한 연구물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 다음으로 통역대학원 과정에서의 커리큘럼을 소개하거나 평가하고, 해외 통역 교육 과정의 커리큘럼을 소개하거나 비교하는 등 커리큘럼에 관한 연구물이 많았다(예: 안인경 2007). 그 밖에 인근 교육 관련 분야(예: 제2언어 교육)에서의 교육 이론을 소개하고, 이를 통역 교육에 접목하기 위한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예: Choi 2003), 교육자 혹은 교육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더 나은 교육 방법을 제안하는 논문(예: 김한식 2002, 양미애 2010, 최문선 2012) 등이 있었다. 그 밖에 후반부에 들어서면서 통역 평가에 대한 논문(예, 이혜승 2008, 정철자 2012, 김혜림 2011)이 연이어 발표되었다. 그 밖에도 최근 들어 한국어-영어 연어사전 구축(이지은 외

2013)이나, 정보통신 기술을 통역 교육에 활용하는 방법(Jin 2013) 등 새로운 교육 도구에 관한 논문들이 발표되어, 교육방법이나 교육이론 소개, 커리큘럼 소개와 분석 등이 주류를 이루었던 그동안의 ED패러다임이 보다 더 다양하게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연구 방법 역시 전반부에 관련 이론 소개, 자료 조사, 설문 조사 등이 주류를 이루었다면, 후반부로 들어서면서 실험 연구, 사례 연구 등 다양한 질적 연구 방법 이외에, 실험 등 보다 실증적인 연구 방법도 함께 시도되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외국어 교육을 중시하는 국내 분위기를 고려할 때 이와 관련된 통역 교육은 앞으로도 꾸준히 주요한 패러다임의 위치를 차지할 것으로 보인다.

⑦ SP(전문직업-제도화 패러다임): SP패러다임은 통역과 통역 교육의 제도화, 통역의 시대적 변천사 등 역사와 사회를 관통하면서 거시적이거나 통시적인 차원에서 통역을 고찰하고 분석하는 패러다임이다. SP패러다임의 전반적인 추세의 변화를 보면 초반부에는 비교적 미미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4년경 패러다임 전환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내용 역시 시대적 변화를 보였다. 즉, 통역 교육자로서 후학들을 양성하면서 동시에 연구를 주도해나갔던 초창기 통역 연구자들은 특히 통역이라는 직업의 제도화, 전문 직업으로서의 통역사의 위상 제고에 많은 관심을 보였으며[예: 통역사 양성과 인증 제도(최정화 1999), 외교통역 분야의 제도화(곽중철 2001), 사법통역의 제도화(Choi 2002) 등] 이는 다른 어떤 직업군보다 짧은 기간 내에 빠른 속도로 전문 직업화했던 국내 통역계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통역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는 중반기 이후에까지 꾸준히 이어졌다[예: 의료통역(Lee 2009), 법정 통역(김진아 2008), 지역사회통역(강지혜 2009)]

SP패러다임은 2012년경부터 새로운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즉 통역, 통역학, 혹은 통역사 교육 제도의 역사적 변천사를 살펴보는 거시 담론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이다(예, 김남희 2012a, 2012b, 2014; 김진아 외 2014; 서유경 2013; 유정화 2012, 2014). 통역학이 처음 그 정체성을 확보하기 시작한지 18년이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통역 혹은 통역학 자체를 되돌아보는 이러한 거시 담론의 등장은[번역학의 거시 담론에 관한 논의는 이항(2011b) 참조] 앞으로도 당분간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sup>6)</sup> 그밖에도 SP패러다임에서는, 국내에서 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정부 부처, 기타 다양한 조직과 기관, 민간 기업 등에 소속되어 통번역업무를 수행하는 인하우스 통역사, 그리고 수화 통역 등 다양한 분야의 통역 업무를 포섭하면서, 보다 다양한 형태의 통역의 제도화에 관한 연구물들이 등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⑧ PP(철학적-관념적 패러다임): 지금까지의 경험주의적 연구 패러다임에서 한걸음 앞서 나가는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PP패러다임은 통역이라는 행위를 형이상학적이고 관념적인 사고의 대상으로 보고 인문학적 성찰을 하고자 하는 패러다임이며[한 예로 신항식 외(2007)는 통역에서 사용되는 텍스트와 통역 상황에서의 관여자들의 역할과 기능을 기호학적 관점에서 서술했다], 전체 226편의 논문 중 총 네 편의 논문이 PP패러다임으로 분류되었다.

## 5. 결과 요약 및 토론

국내에서 본격적으로 통역학 연구가 시작된 근간은 1990년대 말의 한국의대를 위시한 여타 통번역대학원에서의 박사 과정 개설과, 통번역 학회의 설립, 그리고 통번역 학술지의 발행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외대 통번역연구소의 『통번역학 연구』가 1997년, 통역번역학회의 『통역과 번역』이 1999년 그리고 번역학회의 『번역학연구』가 2000년도에 창간된 이래로 2014년 말까지 총 1,125편의 논문이 게재되었으며 그중 국내 연구자들이 산출한 통역 논문의 수가 226편에 이른다. 본 연구는 국내 통번역학 연구의 발전 과정에서 때로는 번역학과 혼재되어, 때로는 번역학에서 분리되어 자칫 정체성을 잃기 쉬운 통역학의 존재와 위상을 분명히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다. 즉, 통역을 연구하는 연구자들이 앞장 서 통역학의 성격과 방향을 정확히 규정하고 진단할 수 있을 때 비로소 번역학과 통역학의 관계가 명확히 규정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이 그 시발점이 되었다. 통역학 연구 초기부터 2014년 말까지 18년이라는 세월동안 통역을 연구하는 국내 연구자들은 어떤 시각과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통역의 제

6) 국내 통역 연구의 패러다임 변화를 살피는 본 연구 역시 SP패러다임에 속한다 할 수 있다.

반 문제에 접근했는지를 가늠하기위해 쾨헤커의 패러다임 개념을 차용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일군의 연구자들이 연구 공동체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의 틀 속에서 동일한 시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나가며 학문적 발전을 이루어 나간다는 패러다임의 개념을 차용하여 국내 통역학 연구의 궤적과 현주소 그리고 어찌면 앞으로 나아갈 향방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4년도에 출간된 쾨헤커의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에서 쾨헤커가 제시한 다섯 개의 패러다임 중 IT는 1980년대 말, 그리고 뒤이어 거의 유사한 시기에 CP, 1990년대 초에는 TT, 90년대 중반부터 NL, 그리고 90년대 말에 DI가 등장했다. 다시 말해 국내에 통역학 연구가 시작된 90년대 말은 이미 서구 통역학계에서는 다섯 개의 패러다임이 연이어 등장하고 있었던 시점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통역학 연구는 어떤 패러다임을 가지고 전개되었을까. 이미 등장했던 패러다임이 동일한 시기에 혼재되는 양상을 보였을까 아니면 서구의 패러다임 등장 순서를 그대로 답습했을까 이 문제의 답을 찾기 위해 국내 주요 통번역 학술지 3종을 선정해 국내 연구자들에 의해 산출된 모든 통역 연구물을 분석하고 그 패러다임의 궤적을 쫓았다.

양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국내 통역 연구의 패러다임은 서구 통역 연구 패러다임과는 다소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다. 간략히 요약하자면, 초기 국내 통역 연구는 IT와 ED, 그 다음 TT가 가장 유력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 CP와 SP 패러다임이 연구의 일정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 그러다 7년이 지난 2004-5년 경에 패러다임의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보면 학계에서는 경험적 방법론을 중시하는 연구 분위기, 그리고 사회적 맥락을 중시하는 연구 분위기가 팽배했고, 통번역대학원에서는 통번역학을 전공한 박사과정 졸업생들이 다양한 연구물을 산출해내기 시작했으며, 한국 사회는 2008년에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제정되는 등 다문화사회로의 이행이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었다. 이러한 내외부적 요인들이 통역연구의 패러다임 변화에 확연한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패러다임 전환 시기를 겪으면서 통역연구 패러다임에는 뚜렷한 변화가 나타났다. 즉, 퇴조하는 패러다임이 등장했고, 빠르게 성장하는 패러다임이 등장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하기도 했다. 우선 퇴조하는 패러다임으로서는

경험주의적 연구를 중시하는 분위기에 따라 경험과 지식을 갖춘 전문통역사의 직관적이고 처방적인 판단을 중시하는 IT패러다임이 퇴조하기 시작했고, 텍스트보다는 사람 간 커뮤니케이션과 의사소통능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면서 주로 텍스트의 미시적 성분들을 비교 분석하는 TT 패러다임이 빠르게 퇴조하기 시작했다. TT패러다임은 주로 언어학적 성분에 초점을 맞추었으며, 텍스트의 문화적 요소 전환에 초점을 맞추는 TT-C패러다임은 패러다임 전환기 직후 서너 편의 논문을 산출한 채 더 이상의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에 반해 석사과정과 학부과정에서의 통역 교육방법이나 커리큘럼 구성들을 분석 제안하는 등 교육 관련 주제들을 다루는 ED패러다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한 비중을 유지해 나갔다. 패러다임 전환기 이후에 빠르게 증가한 패러다임은 SP였다. 초반부터 중반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의 통역사 양성 프로그램(의료통역, 사법통역, 외교통역, 방송통역 등)의 제도화 등 통역사라는 직업의 정립과 발전에 초점을 맞추던 SP패러다임은 2010년대에 접어들면서 통역사라는 직업의 또는 통역사 교육 제도의 역사적 변천사 등 보다 거시적인 담론으로 눈길을 돌리기 시작했다.

그 외에 후반부 들면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패러다임이 NL, DI, 그리고 PP이다. NL은 아직 신경언어학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과의 협력이 충분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점, 영상 기기들이 통역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을 만큼의 정교성이 부족하다는 점 등의 요인이 있을 것이고, DI의 경우는 아직 지역사회 통역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부족하고, 또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점이 반영되었을 것이다. PP역시 관념적이고 형이상학적인 개념적 사고를 가지고 연구에 접근하는 통역 연구자의 수가 적기도 하고, 관련 분야와의 협력이 이루어지지도 못하는 점 때문에 아직 충분히 그 역할을 해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으로 이 세 접근법이 어떤 양상을 띠며 유력한 패러다임으로 성장해나갈지는 좀 더 지켜보아야 할 일이다.

국내 통역학 연구는 1997년경에 시작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18년의 세월 동안 한 번의 패러다임 전환기를 겪으면서 지속적인 확대와 성장을 거듭해왔다. 처음부터 계속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패러다임이 있는 가하면, 시간이 지나면서 퇴조하는 패러다임도 있고, 이에 반해 급격히 성장하거나 새로 등장하는 패러다임도 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앞으로 다양한 사회경제적

변수에 따라, 또한 총체적인 학문 패러다임의 변화에 발맞추어 통역 연구는 지속적인 발전과 진화를 거듭해나갈 것이라는 점이다. 머지않아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한 주제와 대상, 새로운 시각, 혁신적인 연구 방법들이 등장해 새로운 패러다임들을 만들어낼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내다보며 본 연구가 지금 이 시점에서 국내 통역학의 현 주소를 진단하고 앞으로의 향방에 하나의 이정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또한 향후 후속 작업으로서 해외 통역 연구의 패러다임 향방을 추적하고 이를 국내 패러다임 변화추이와 비교분석함으로써 보다 큰 그림 속에서 국내 통역학 연구의 궤적을 그려보는 과정을 밟아나갈 것을 기약한다.

### 참고문헌

- 강지혜 (2004) 『통역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 강지혜 (2009) 「이주민을 위한 지역사회통역에 대한 연구」, 『번역학연구』 10(4): 9-39.
- 고영민 (2004) 「대화통역사의 역할에 관한 연구」, 『번역학 연구』 5(1): 5-24.
- 곽중철 (2001) 「외교 및 정치회견 통역에 관한 소고」, 『통번역학연구』 5: 1-22.
- 김나제스다 (2012) 「의료대화와 의료통역: 대화의 비대칭성에 따른 환자의 저항반응 관행비교」, 『통번역학연구』 16(3): 43-68.
- 김남희 (2012a) 「통역의 역사 개관 I: 고려시대까지」, 『통번역학연구』 16(1): 1-19.
- 김남희 (2012b) 「통역의 역사 개관 II: 조선전기」, 『통번역학연구』 16(4): 25-53.
- 김남희 (2014) 「통역의 역사 개관III: 조선후기」, 『통번역학연구』 18(1): 1-39.
- 김대진 (2002) 『국제회의 통역교육』, 서울: 한국출판사.
- 김대진 (2005) 「동시통역의 인지과정 분석」, 『통역과 번역』 7(2): 101-19.
- 김련희 (2013) 「통역번역과 요약하기」, 『통역과 번역』 15(2): 1-37.
- 김정우 (2005) 「한국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전망」, 『번역학연구』 9(1): 29-69.
- 김정우 (2008) 「한국번역사의 시대 구분」, 『번역학연구』 9(1): 29-69.
- 김지원 (2000) 「번역 연구의 발전과 번역학의 현황」, 『번역학연구』 1(1): 9-31.
- 김지원 (2004) 「번역학의 어제와 오늘」, 『번역학연구』 5(1): 44-54.

- 김진아 (2008) 「법정통역의 실태와 향후과제」, 『통번역학연구』 11(2): 21-37.
- 김진아 외 (2014) 「한국 통번역교육의 과거, 현재와 미래」, 『통번역학연구』 18(3): 315-40.
- 김한식 (1997) 「연설체 표현의 일한통역」, 『통번역학연구』 1: 143-159.
- 김한식 (2002) 「한일통역 및 번역 강의에 대한 연구조사」, 『통번역학연구』 6: 21-51.
- 김혜림 (2011) 「교육에서의 통역평가기준에 대한 고찰」, 『통역과 번역』 13(2): 71-91.
- 김혜림 (2013) 「한국의 당대(1999-2013) 번역학 연구 동향」, 『번역학연구』 14(5): 95-115.
- 김혜림 & 이충현 (2007) 「칭찬과 반응중심으로 살펴본 문화간 화행통역」, 『통역과 번역』 9(2): 181-205.
- 박현일, 김태성 & 김의수 (2014) 「해석문법을 활용한 영한순차통역물의 통사적 복잡성과 다양성 비교연구」, 『통번역학연구』 18(4): 65-96.
- 방교영 (2002) 「한노·노한 통역에 나타난 문화적요소 연구」, 『통번역학연구』 6: 73-88.
- 방교영 (2003) 「접속사 ~문의 문장구역 연구」, 『통번역학연구』 7: 107-123.
- 서유경 (2013) 「러시아의 통번역연구고찰」, 『번역학연구』 17(2): 41-68.
- 성종환 (1997) 「동시통역시 발화오류의 대처방안 연구: 러-한 동시통역을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1: 161-183.
- 신항식 & 방교영 (2007) 「통역맵핑을 위한 행위소구조의 이론적탐색」, 『통번역학연구』 11(1): 79-116.
- 안인경 (2007) 「한국외대 통번역대학원 교과과정에 대한 고찰」, 『통번역학연구』 10(2): 85-103.
- 양미애 (2010) 「외국어전공 대학생을 위한 통번역전문교육과정의 필요성에 대한 조명」, 『번역학연구』 11(4): 125-44
- 유명우 (2000) 「한국의 번역과 번역학」, 『번역학연구』 1(1): 229-48.
- 유정화 (2012) 「최초 러시아어 통역사들의 등장배경과 역할」, 『통번역학연구』 16(3): 135-156.
- 유정화 (2014) 「조선시대 통번역 교육 연구」, 『번역학연구』 15(3): 125-151.

- 원중화 (2010) 「영한 동시통역 전략의 방향성 연구」, 『통역과 번역』 12(1): 131-56.
- 이영훈 (2013) 「한국 번역학사 기술을 위한 전제와 시론」, 『번역학연구』 14(2): 187-222.
- 이지은 (2011) 「법정신문에 사용되는 질문 유형과 통역」, 『통역과 번역』 13(2): 127-46.
- 이지은 & 최효은 (2013) 「코퍼스기반 통번역학습자용 연어사전구축방안」, 『통번역학연구』 17(2): 117-47.
- 이창수 (1997) 「한국어-영어간의 정보배열의 구조적차이가 동시통역에 끼치는 영향」, 『통번역학연구』 1: 1-22.
- 이창수 (2001) 「Note-taking을 도착어로 할때의 교육적 장점 연구」, 『통번역학연구』 5: 97-111.
- 이태형 (1999) 「영한 동시통역에 있어서의 휴지연구」, 『통역과 번역』 1: 123-44.
- 이태형 (2000) 「아카데미상 시상식 텔레비전 생방송 동시통역의 시간적 양상연구」, 『통역과 번역』 2: 85-110.
- 이태형 (2001) 「동일 영어원문의 한국어 동시통역과 번역비교연구」, 『통역과 번역』 3: 165-84.
- 이태형 (2002) 「동시통역의 시간적 양상 컴퓨터분석도구」, 『통역과 번역』 4(2): 113-34.
- 이향 (2011a) 「국내 번역학 연구경향에 관한 일고찰」, 『통번역학연구』 15: 341-62.
- 이향 (2011b) 「번역학과 메타담론」, 『번역학연구』 12(1): 191-210.
- 이혜승 (2008) 「동시통역 품질평가에 대한 경험적 연구고찰」, 『통번역학연구』 12(1): 91-107.
- 장애리 (2007) 「통번역과 문화시스템」, 『통역과 번역』 9(2): 225-39.
- 정연일 (1997) 「예비통역사를 위한 한국어 말하기 지도의 방향」, 『통번역학연구』 1: 93-110.
- 정철자 (2012) 「통역평가 비교가능성」, 『통번역학연구』 16(2): 219-37.
- 정호정 (2013) 「번역학 전문학술지의 발달과 최근 연구동향」, 『통역과 번역』 15(1): 235-56.
- 정혜연 (2013) 「통역사의 어휘능력: 인지 및 신경심리학적 관점에서」, 『통번역학연구』 17(1): 281-305.

- 최문선 (2012) 「통역교육에서의 난이도와 난이도연구」, 『번역학연구』 13(5): 247-76.
- 최정화 (1999) 「통역사.번역사 양성과 인증제도」, 『통역과 번역』 1: 163-85.
- 최정화 (2001) 『통역번역사에 도전하라』, 서울: 넥서스.
- 최희섭 (2007) 「번역학 연구의 현황과 국내문헌 인용고찰」, 『번역학연구』 8(1): 323-45.
- 황지연 (2003) 「관용표현의 통역유형」, 『통번역학연구』 7: 246-61.
- Choi, Jung Hwa (2002) 'Court Interpretation in Korea and Suggestions for Improvement',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4(2): 173-95.
- Choi, Jung Yoon (2003) 'The Interpretive Feedback Model',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5(2): 221-35.
- Fabbro, F., & Gran, L. (1997) Neurolinguistic aspects of simultaneous interpretation. In Y. Gambier, D. Gile, & C. Taylor (Eds). *Proceedings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rpreting: What do we know and how?* (9-20) Amsterdam/Philadelphia: John Benjamins.
- Hong, Sul Young (2010) 'Paraphrasing as an Anti-interference Technique in Sight Translation',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3(2): 141-70.
- Jin, Sil Hee (2013) 'Constraints and the Applicability of ICT in The Self-training of Conference Interpreting Students',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7(2): 195-222.
- Kuhn, S. Thomas (1996) *The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s(3rd ed.)*, University of Chicago.
- Lederer, Marianne (1981) *La traduction simultan e*. Minard. Paris.
- Lee, Mi Gyong (2010) 'Implications for Working Memory and Knowledge on Information: Transfer during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12(1): 157-77.
- Lee, Sang Bin (2009) 'The Socio-legal Training Landscape of Healthcare Interpreting in Korea', *The Journal of Translation Studies* 10(4): 139-78.
- Lim, Hyang Ok (2007) 'Interpretation as a Cultural Process',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9(2): 203-24.

- Munday, Jeremy (2001) *Introducing Translation Studies*. Routledge: London & NY.
- Nam, Won Jun (2008) 'A Causal Relation between Note-taking and CI Performance',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1(2): 55-79.
- Nam, Won Jun (2012) 'Interpreting for Korean Overseas Adoptees: A Case Study of Undergraduate Student Interpreters Working for Adoptees and Its Implications', *Translation Studies* 5: 35-64.
- Pöchhacker, Franz (2004) *Introducing Interpreting Studies*. Routledge: London & NY.
- Seleskovitch, Danica (1978) *Interpreting for international conferences*. WA: Pen & Booth.
- Shlesinger, Mariam (1989) Simultaneous Interpretation as a Factor in *Effecting Shifts in the Position of Texts on the Oral-Literate Continuum* (unpublished). M.A. Thesis. Tel Aviv University.
- Wadensj , Cecilia (1998) *Interpreting as Interaction*. Longman: London/ NY. .
- Won, Jong Hwa (2007) 'Code-switching and Cognitive Models of the Process of Simultaneous Interpreting', *Interpretation and Translation* 9(2): 89-112.

[Abstract]

**The Yesterday, Today, and Tomorrow of Interpreting Studies in Korea**  
— Focusing on paradigm shifts in interpreting studies —

Won, Jong-Hwa  
(Chung-Ang University)

As stated by a number of scholars, interpreting studies has been discussed as a sub-discipline of the canonical translation studies for decades. However, there are inevitable distinctions between the two domains including the feature of immediacy of the interpreting processes. In actuality, interpreting studies involves a wide range of issues including cognitive processes during interpreting, surrounding social functions and other environmental parameters, various textual elements, assessments as well as pedagogical disciplines and methodologies, which are distinct from those of translation studies. Therefore, it is incumbent upon interpreting scholars to suggest ways to systematically and concretely define and categorize interpreting research areas, before drawing any conclusion about how to relate interpreting studies with translation studie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current study aims to explore the paths of interpreting studies in Korea. To this end, the notion of paradigm was employed as suggested by Pöschhacker(2004). All the papers published in three major translation and interpreting journals in Korea from 1997 to 2014 were investigated. Out of a total of 1,125 papers, 226 papers were published by Korean scholars on the subject of interpreting. The current author read through the entire collection of the 226 papers and determined the paradigm status of each and every paper, mostly from their research objectives and research settings. From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major paradigm shift from 2004 to 2005. Before the shift, 5 paradigms coexisted in the interpreting

research field: the interpretive theory of translation paradigm(IT), the cognitive processing paradigm(CP), the target-text-oriented paradigm(TT), the educational paradigm(ED), and the socio-professional paradigm(SP). Among them, ED, IT, and TT were most prevalent, followed by CP and SP. From 2004 to 2005, however, there was a major paradigm shift. The IT paradigm and TT paradigm declined rapidly, with few papers published under those categories, while the SP paradigm came to the fore. At the beginning, most of the papers under the SP category discussed how to establish the profession of interpreter as a significant professional field. Over time, however, the focus was shifted to meta-discourse about the historical trajectories of the profession. Three other paradigms which emerged after the shift, were the dialogic discourse-based paradigm(DI), the neurolinguistic paradigm(NL), and the philosophical-speculative paradigm(PP).

▶ Key Words: interpreting studies, paradigm shift, research paradigm, socio-cultural factors

원종화

중앙대학교 국제대학원 전문통번역학과

wonjh@cau.ac.kr

관심분야: 통번역사의 언어정보처리, 통번역교육, 인지과학

논문투고일: 2015년 1월 31일

심사완료일: 2015년 2월 28일

게재확정일: 2015년 3월 9일